2021년 12-1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12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 례 >

< 요 약 > ---- 1

1. 해외경제 ---- 3

2. 실물경제 ---- 6

3. 국내금융 ---- 8

4. 산업별 동향 ---- 10

5. 고용 ---- 12

6. 수출입 ---- 13

< 부록 >

원자재 가격 전망과 시사점 ---- 16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1.11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18

< 요 약 >

□ 해외경제 : 일본 3분기중 전기비 -0.9%, 유로존 2.2% 성장률 기록

○ 미국은 10월 실물지표 증가세와 체감지표 혼조세 등 지표상 여전히 불확실한 모습인 가운데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심

○ 일본은 3분기중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이 동반 감소하면서 전기비 성장률도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한 반면에, 유로권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들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전분기에 이어 2%대 성장세

○ 중국은 10월 실물지표들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실물지표들의 약세와 물가지표들의 상승세 지속 등에 대한 우려 대두

○ 달러화는 지난 11월 미국의 인플레 압력 심화로 통화긴축의 가속 우려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인 이후,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으로 약세 전환

○ 유가는 11월에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세와 주요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하고, 12월 초에 반등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9%, 소비 증가·투자 감소

○ 지난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3.0%)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다시 감소 전환(-0.3%)하면서 전월비 1.9% 감소

-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2% 증가한 반면에,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동반 감소한 여파로 5.4% 감소

□ 금 융 : 11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12월 초순(12.1~12.10일) 금리 하락 및 원/달러 혼조세

○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 대출 확대에도 중소기업 대출이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세가 전월보다 축소되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주택담보대출이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축소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중 인플레 우려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이후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과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 등에 따른 우려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11월에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에도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세 등으로 혼조

□ 산업별 동향 : 10월 제조업생산 · 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 등에서 큰 폭 감소함에도 반도체와 기계장비, 1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힘입어 전년동월비 4.6% 증가

- 제조업ICT 생산은 증가세가 확대, 중공업도 증가, 경공업은 소폭 감소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와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 등에서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5.2%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8.1% 증가, 전월비 기준 0.4% 감소

□ 고 용 : 10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조업에서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된 반면에,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5% → 2.4%)

□ 수출입 : 11월 수출 +32.1%, 수입 +43.6%, 무역흑자 31억 달러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2.1% 증가한 604억 달러, 수입이 43.6%나 증가한 57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다수 주력 품목에서 역대 11월 수출 실적에서 1~2위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대상국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9대 지역에 대한 수출이 8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간 데 힘입어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

1. 해외경제

□ 미국 : 10월 경제지표 혼조세, 인플레 강화로 금리 인상 시점 주목

○ 지난 10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확대된 모습을 보인 반면에, 체감지표들은 여전히 부문간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이 상존. 인플레 압력이 더욱 확대되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

- 산업생산은 제조업을 비롯해 광업과 유틸리티 등의 생산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만에 전월비 증가하고, 소매판매 역시 자동차·부품과 주유소 판매 등의 증가세 등에 힘입어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신규수주의 대폭 감소 영향으로 3개월 만에 하락한 반면, 소비자 신뢰지수는 현재 평가지수(144.3 → 147.4)와 미래 기대지수(86.7 → 91.3)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5개월 만에 상승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전월보다 확대(+53.1만개)되고, 실업률도 4개월 연속 하락한 데 이어, 경기선행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90년 12월 이후 최고치(전년동월비 6.2%)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 압력이 강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주목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GDP,연율) (전년동기비, %)	2.3	-3.4	6.3 (0.5)	6.7 (12.2)	2.0 (4.9)				
산업생산	-0.8	-7.2	1.0	1.6	1.0	0.8	0.0	-1.3	1.6
(IT생산)	(3.9)	(7.1)	(3.2)	(3.5)	(1.0)	(0.2)	(0.6)	(0.9)	(1.3)
내구재수주	3.5	-13.6	5.5	3.0	2.8	0.5	1.3	-0.4	-0.4
소매판매	3.3	0.3	8.0	6.5	-0.5	-1.6	1.2	0.8	1.7
소비자물가	1.8	1.2	0.9	2.0	1.6	0.5	0.3	0.4	0.9
실업률(%)	3.7	8.1	6.2	5.9	5.1	5.4	5.2	4.8	4.6
무역수지(10억U$)	-576.3	-676.7	-206.1	-207.1	-225.0	-70.3	-73.2	-81.4	-67.1
ISM 제조업지수[1]	51.3	52.5	61.4	60.8	60.2	59.5	59.9	61.1	60.8
소비자신뢰지수[2]	128.3	100.9	96.1	62.3	62.6	125.1	115.2	109.8	113.8
경기선행지수[3]	111.5	106.1	110.6	114.4	117.10	116.4	117.2	117.3	118.3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9월 실물지표 혼조세, 3분기 성장률 -0.9%로 마이너스 전환

○ 9월 생산 감소폭 확대와 소비 증가 전환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무역수지가 전월의 적자 규모를 유지하고, 경기선행지수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3분기중 소비(전기비 -1.3%)와 투자(-2.3%) 등 내수 부문이 동반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기비 성장률도 다시 마이너스 전환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2	-4.5	-0.7	0.5	-0.9				
광공업생산	-2.7	-10.6	2.8	1.2	-3.7	6.5	-1.5	-3.6	-5.4
민간기계수주	-0.9	-8.5	-5.3	4.6	0.7	-1.5	0.9	-2.4	0.0
소매판매	0.1	-3.5	0.4	-2.1	1.2	3.1	1.0	-4.0	2.8
소비자물가	0.5	0.0	0.5	-0.5	0.4	0.3	0.2	-0.2	0.4
실업률(%)	2.4	2.8	2.8	2.9	2.8	2.9	2.8	2.8	2.8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542	434	-831	379	436	-643	-624
경기선행지수[1]	93.8	88.6	99.7	103.4	101.7	104.2	104.1	101.3	99.7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10월 실물지표 보합세, 실물경기 둔화와 인플레 우려 고조

○ 지난 10월중 생산과 소비가 전월보다 증가율이 약간 높아진 반면에, 투자와 수출은 전월보다 증가율이 약간 낮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최근에 실물지표들의 둔화세와 물가지표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일부 통화당국 관계자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제기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18.3	7.9	4.9				
산업생산	5.7	2.8	24.6	9.0	4.9	6.4	5.3	3.1	3.5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25.6	12.6	7.3	10.3	8.9	7.3	6.1
소매판매	8.0	-3.9	34.0	14.1	5.1	8.5	2.5	4.4	4.9
소비자물가	2.9	2.5	0.0	1.1	0.8	1.0	0.8	0.7	1.5
수 출(달러화기준)	0.5	3.6	48.7	30.3	24.4	19.0	25.6	28.1	27.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9월 실물지표 동반 감소, 3분기 역내 성장률 2%대 유지

○ 9월 생산과 소비 등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3분기 성장률이 독일(1.7%)과 프랑스(3.0%), 이탈리아(2.6%) 등 주요국들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2%대 유지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2	2.2	2.2				
산업생산	-1.4	-8.4	1.2	0.1	-0.2	0.3	1.3	-1.7	-0.2
소매판매	2.4	-1.0	-1.3	3.9	0.9	2.0	-2.2	1.0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1.1	1.8	2.8	1.9	2.2	3.0	3.4
무역수지(10억유로)	222.7	234.9	69.1	37.3	29.0	11.1	13.2	9.7	6.1
경기체감지수[1)]	103.7	88.2	95.3	114.3	118.1	117.9	119.0	117.6	117.8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 유가 반등 전환

○ 달러화는 11월중 미국의 고용 호조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가중되는 데다 파월 의장의 재지명으로 통화긴축의 가속 우려가 높아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으로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면서 약세 전환

○ 유가는 11월에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 및 미 달러화 강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주요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과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한 이후에 12월 들어서 반등 전환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1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0일
엔/달러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95	113.17	113.42
달러/유로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558	1.1338	1.1318
미 국채 (10년만기)	1.74	1.63	1.59	1.47	1.22	1.31	1.49	1.55	1.44	1.48
WTI유	59.2	63.6	66.3	73.5	74.0	68.5	75.0	83.6	66.2	71.7
두바이유	62.4	64.5	66.6	73.0	73.3	69.4	75.9	81.9	71.0	72.7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10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1.9%, 소비 증가 · 투자 감소

○ 지난 10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생산이 전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3.0%)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다시 감소 전환(-0.3%)하면서 전월비 1.9% 감소

- 광공업생산이 반도체(전월비 -1.0%)와 자동차(-5.1%), 1차금속(-5.9%) 등에서 동반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3.0%나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도소매(-0.7%)와 금융·보험(-2.1%) 등에서 감소함에 따라 0.3% 감소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GDP성장률	2.2	-0.9*	1.9*	6.0*	4.0*	-	-	-	-
			(1.7*)	(0.8*)	(0.3*)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1.2*	3.7*	3.3*	-	-	-	-
			(1.2*)	(3.6*)	(-0.2*)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12.4*	12.8*	4.2*	-	-	-	-
			(6.1*)	(1.1*)	(-2.4*)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1.8*	-1.2*	-1.2*	-	-	-	-
			(1.3*)	(-2.3*)	(-3.5*)				
전산업생산지수	1.0	-1.2	2.7	7.2	3.9*	4.5	5.9	1.4*	4.8*
			(1.7)	(0.4)	(0.5*)	(-0.7)	(-0.1)	(1.1)	(-1.9)
광공업생산지수	0.4	-0.4	4.4	12.7	5.1*	7.8	9.9	-1.8*	4.5*
			(3.4)	(-1.2)	(0.5*)	(0.2)	(-0.5)	(-1.1*)	(-3.0*)
제조업생산지수	0.5	-0.3	4.4	13.2	5.1*	7.4	10.4	-1.9*	4.6*
			(3.4)	(-1.2)	(0.4*)	(-0.1)	(-0.3)	(-1.1*)	(-3.1*)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2	5.7	3.9*	4.0	4.2	3.4*	5.2*
			(0.7)	(1.7)	(0.9*)	(0.1)	(-0.8)	(1.4*)	(-0.3*)
소매판매액지수	2.4	-0.2	6.4	4.4	5.0*	7.9	3.8	3.6*	7.4*
			(1.7)	(2.7)	(0.1*)	(-0.5)	(-0.8)	(2.4*)	(0.2*)
설비투자지수	-5.7	6.0	11.9	12.7	5.9*	11.0	12.6	-5.0*	2.9*
			(6.9)	(0.7)	(-2.4*)	(2.0)	(-4.4)	(-1.8*)	(-5.4*)
건설기성액	-2.3	-4.1	-7.2	-5.3	-6.3*	-8.1	-0.1	-9.9*	-0.8*
			(-3.6)	(-2.4)	(-1.9*)	(-2.0)	(1.4)	(1.8*)	(-1.3*)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4.4	116.6	117.1*	117.0	117.1*	117.2*	117.1*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98.8	99.7	101.2	101.3*	101.3	101.2*	101.2*	101.0*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4.7	127.1	128.2*	128.1	128.2*	128.2*	128.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1	99.6	101.6	102.5	102.4*	102.7	102.4*	102.1*	101.6*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전월비 -2.1%) 판매가 감소한 반면에, 가전제품 등 내구재(2.2%)와 의복 등 준내구재(2.8%) 판매가 동반 증가하면서 전월비 0.2% 증가(전년동월비 7.4% 증가, 3개월 만에 최고치)

-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전월비 -8.7%)와 기계류(-4.4%) 투자가 동반 감소한 여파로 전월비 5.4%나 감소하고, 건설기성액(불변)도 토목(6.8%) 공사 실적의 증가에도 건축(-3.9%) 공사 실적이 감소하면서 1.3% 감소

- 동행종합지수는 소매판매액과 비농림어업 취업자수 등이 증가한 반면에, 내수출하지수와 광공업생산지수가 하락하면서 전월비 0.1% 하락(2021년 1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하락)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장단기 금리차와 경제심리지수 등이 상승한 반면에, 재고순환지표와 수출입물가비율 등이 하락하면서 0.2% 하락(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 물가 : 11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0.4% 상승, 전년동월비 3.7% 상승

○ 11월 소비자물가는 교통(1.4%)을 비롯해 식료품·비주류음료(0.5%)와 의류·신발(1.3%), 음식·숙박(0.5%), 주택·수도·전기·연료(0.2%) 등 다수 부문에서 상승함에 따라 전월비 0.4% 상승(전년동월비 3.7%, 2011년 12월 이후 최고치)

○ 10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품(전월비 -4.7%)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서비스(0.0%)도 보합세를 보인 영향에도, 공산품(1.8%)에서 상당폭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8% 상승(전년동월비 8.9%,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소비자물가	0.4	0.5	1.1 (1.2)	2.5 (0.5)	2.6 (0.8)	2.4 (-0.1)	2.6 (0.2)	2.6 (0.6)	2.5 (0.5)	3.2 (0.1)	3.7 (0.4)
근원물가	0.9	0.7	0.9 (0.6)	1.4 (0.6)	1.8 (0.5)	1.5 (0.1)	1.7 (0.1)	1.8 (0.3)	1.9 (0.3)	2.8 (0.3)	2.3 (0.1)
생산자물가	0.0	-0.5	2.4 (2.6)	6.4 (2.5)	7.4 (2.0)	6.6 (0.5)	7.4 (1.0)	7.4 (0.5)	7.6 (0.4)	8.9* (0.8*)	-
근원물가	0.1	-0.1	2.4 (2.0)	6.0 (2.7)	7.2 (1.8)	6.4 (0.5)	7.0 (0.9)	7.3 (0.5)	7.5 (0.3)	8.1* (0.6*)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11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 11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이 대기업 대출의 증가 규모가 확대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되면서 전체 증가세가 둔화 (21.10월 +10.3조원 → 21.11월 +9.1조원, 대기업 +2.8조원, 중소기업 +6.4조원)

- 대기업 대출은 일부 기업들의 지분투자 등을 위한 대규모 차입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확대

-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전월의 증가 규모보다 축소되었으나, 코로나 19 금융지원 및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증가 규모가 높은 수준

○ 회사채 발행은 금리 변동성 확대와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순상환 전환 (21.10월 +0.2조원 → 21.11월 −0.2조원)

○ 반면에 CP는 전월과 달리 순발행 기조로 전환 (21.10월 −1.0조원 → 21.11월 +0.7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유상증자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확대 (21.10월 +1.1조원 → 21.11월 +2.3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1월말 잔액
	1~11월	11월	1~11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 은행 원화대출	51.1	5.9	113.0	6.7	82.9	7.7	10.3	**9.1**	1,068.4
(대 기 업)	-0.2	0.8	24.5	-0.3	6.5	0.3	2.3	**2.8**	181.0
(중소기업)	51.2	5.1	88.5	7.0	76.5	7.4	8.0	**6.4**	887.4
<개인사업자>	3.9	2.6	45.7	3.9	33.2	3.5	2.6	**2.7**	421.9
■ 회사채 순발행	16.4	-0.8	15.2	0.5	17.1	2.0	0.2	**-0.2**	..
■ CP 순발행	5.8	0.0	3.0	-1.2	6.5	-1.3	-1.0	**0.7**	35.7
■ 주식발행	5.6	1.0	8.0	0.8	26.0	1.8	1.1	**2.3**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고, 기타대출도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더욱 축소 (21.10월 +5.2조원 → 21.11월 +3.0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집단대출 취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10월 +4.7조원 → 21.11월 +2.4조원)

- 기타대출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폭 증가 (21.10월 +0.5조원 → 21.11월 +0.5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11월말 잔액
	1~11월	11월	1~11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은행 가계대출	53.5	7.0	93.9	13.7	72.1	6.4	5.2	**3.0**	1,060.9
▪주택담보대출	40.1	4.9	62.0	6.2	55.0	5.6	4.7	**2.4**	776.9
▪기타대출	13.5	2.1	32.0	7.4	16.9	0.8	0.5	**0.5**	282.9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1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2월 초순(12.1~12.10일) 금리 하락 & 원/달러 혼조세

○ 국고채(3년) 금리는 11월중 인플레 우려와 파월 의장의 재연임,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이후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과 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하락 전환 (12.1일 1.813% → 12.10일 1.805%, −0.01%p)

○ 원/달러 환율은 11월에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국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오미크론 바이러스 출현에도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수세 등이 이어지면서 1,180원을 중심으로 등락 (12.1일 1,179.2원 → 12.10일 1,181.3원, +2.1원)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2/4	3/4	4/4	1/4	2/4	9월	10월	11월	12.10일
국고채(3년)	0.84	0.85	0.98	1.13	1.45	1.59	2.10	1.80	1.81
회사채(3년,AA-)	2.25	2.19	2.21	2.06	1.97	2.05	2.57	2.37	2.40
CD(91일)	0.79	0.63	0.66	0.75	0.68	1.04	1.12	1.26	1.27
CP(91일)	1.51	1.11	1.09	1.00	0.97	1.18	1.24	1.49	1.52
원/달러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84.0	1,168.6	1,187.9	1,181.3
원/100엔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58.2	1,031.7	1,049.6	1,034.7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4.6%, 전월비 －3.1%

○ 제조업생산은 자동차(전년동월비 -13.5%)과 금속가공(-8.9%) 등에서 큰 폭 감소한 영향에도 반도체(38.7%)를 비롯해 기계장비(7.5%)와 1차금속(1.9%), 화학제품(2.2%) 등에서 증가세를 유지한 데 힘입어 증가 전환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2.3%)에서 증가세가 전월(17.3%)보다 확대되고, 중공업(5.5%)도 확대된 반면에, 경공업(-0.1%)은 감소폭이 축소

- 전월비 기준으로는 기타운송장비(0.8%)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1.0%)를 비롯해 자동차(-5.1%), 기계장비(-4.4%), 1차금속(-5.9%), 화학제품(-1.9%) 등 다수 업종에서 감소한 여파로 인해 4개월 연속 감소세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7)는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하락세가 이어진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비 0.4%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는 보합(0.0%)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0월중 121.0%로 전월보다 7.5%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감소 폭이 확대(-1.2% → -3.9%, 계절조정치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증가 폭 역시 확대(3.2% → 7.5%)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1%로 전월에 이어 2.5%p 추가 하락세

□ 서비스업생산 : 10월중 전년동월비 ＋5.2%, 전월비 －0.3%

○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전년동월비 4.3%), 운수·창고(10.3%), 정보통신(7.3%), 전문·과학·기술서비스(1.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4.3%) 등 다수 업종에서 전월보다 증가세가 확대됨에 따라 5.2%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도소매(-0.7%)와 전문·과학·기술서비스(-2.5%) 등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운수·창고(4.0% → 1.1%), 숙박·음식점(11.3% → 4.5%) 등에서는 전월보다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된 영향으로 감소 전환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8.1%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0.4%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1/4	2/4	3/4*	8월	9월*	10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09.8	113.7	111.8	109.5	110.1	113.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4.4	12.7	5.1	9.9	-1.8	4.5	-3.0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09.1	114.4	112.1	109.6	110.8	114.6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4.4	13.2	5.1	10.4	-1.9	4.6	-3.1
섬 유	135.0	-5.9	-10.5	-4.5	25.0	4.6	9.9	-7.5	-0.1	-3.3
화 학	883.8	-1.3	-3.0	2.8	15.7	7.8	9.9	2.2	2.2	-1.9
철 강	454.3	-2.2	-6.3	-1.9	13.3	12.0	14.7	2.7	2.1	-5.6
반도체	1,285.6	11.7	22.7	21.9	27.2	33.9	36.8	30.6	38.7	-1.0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3.2	8.8	-6.5	-2.4	-19.3	-11.7	4.8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8.7	41.7	18.9	28.4	12.6	8.8	-12.3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17.0	31.7	16.2	17.8	6.9	2.8	-9.3
기계, 장비	819.2	-5.9	3.6	9.4	18.4	6.8	11.1	1.4	7.5	-4.4
자동차	981.6	-0.5	-10.0	11.2	22.5	-8.7	6.1	-24.3	-13.5	-5.1
조 선	206.3	17.6	8.6	-15.6	-17.6	-22.7	-22.1	-24.5	-13.7	0.5
- 중 공 업	-	0.6	0.6	5.5	14.4	6.6	11.8	-0.6	5.5	-2.9
- 경 공 업	-	-0.6	-4.0	-0.3	7.4	-1.6	4.3	-7.9	-0.1	-3.8
- 제조업ICT	-	4.8	11.9	14.0	19.9	20.9	23.6	17.3	22.3	0.6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05.9	110.8	110.0	108.5	110.5	111.9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2	5.7	3.9	4.2	3.4	5.2	-0.3
도소매	211.3	-0.4	-2.6	3.1	5.2	3.6	5.4	0.2	4.3	-0.7
운수및창고	90.3	0.0	-14.2	-2.4	11.0	6.9	7.4	7.1	10.3	1.1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13.1	1.5	-1.3	-5.3	11.3	7.3	4.5
정보통신	79.9	3.6	1.5	2.0	3.9	7.0	7.8	5.8	7.3	0.3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5.0	9.7	6.3	6.4	4.6	7.2	-2.1
부동산	31.8	0.5	5.5	-2.6	5.7	0.4	4.2	1.2	2.7	-1.5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2.1	4.2	0.3	2.8	0.3	1.7	-2.5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3.8	5.6	2.8	2.1	2.1	4.3	1.4
교 육	106.0	-0.4	-4.7	0.2	3.0	1.8	0.8	2.2	1.9	0.1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8	3.1	4.6	4.5	4.3	3.3	0.2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18.0	20.6	7.3	5.7	15.0	14.1	1.5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8	0.3	-0.4	-2.6	-0.2	5.2	0.7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0.5	6.1	3.8	6.1	-4.5	-4.0	0.1
- ICT서비스업	-	3.5	4.9	4.3	4.4	6.6	7.5	4.2	8.1	-0.4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10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4% 증가

○ 10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가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농림·어업과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전월보다 둔화된 영향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2.5% → 2.4%)

-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보다 더욱 축소(-0.8% → -0.3%)

-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전월보다 소폭 낮아지고(1.4% → 1.3%),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세도 약간 둔화(3.3% → 3.0%)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소폭 하락(2.7% → 2.5%)하고,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감소율도 전월보다 약간 더 하락(-1.5% → -1.7%)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에서는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1.6% → 12.5%)를 비롯해서 교육서비스(5.6% → 6.1%)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5.1% → 5.4%)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된 영향에도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0.1% → -2.7%)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3.8% → 1.4%)에서도 취업자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전체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4.3% → 3.9%)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2%로 2개월 연속 상승세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산 업	27,123	26,904	26,369	27,467	27,645	27,637	27,648	27,603	27,683	27,741
전년동기비	1.1	-0.8	-1.4	2.3	2.1	2.2	2.0	1.9	2.5	2.4
농림·어업	4.1	3.6	-0.2	0.2	1.5	1.0	0.7	2.4	1.4	1.3
제 조 업	-1.8	-1.2	-0.6	0.1	-0.8	-0.2	0.1	-1.7	-0.8	-0.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2.9	2.8	2.7	2.5	2.6	3.3	3.0
건 설 업	-0.7	-0.2	1.7	7.0	4.4	7.0	4.6	6.1	2.7	2.5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0	-5.3	-6.9	-2.4	-2.6	-2.7	-3.5	-2.7	-1.5	-1.7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1.8	5.2	6.9	5.8	6.2	6.3	8.3	9.0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4	4.3	4.1	3.9	4.2	3.7	4.3	3.9
실 업 률 (계절조정, %)	3.8	4.0	4.4	3.7	3.0	3.7	3.3	2.8	3.0	3.2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11월 수출 32.1% 증가, 수입 43.6% 증가, 무역수지 흑자 31억 달러

○ 지난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32.1% 증가한 604억 달러, 수입이 43.6%나 증가한 574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3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자동차부품을 제외하고 반도체·석유화학·일반기계 등 다수 주력 품목에서 역대 11월 수출 실적에서 1~2위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대상국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9대 지역에 대한 수출이 8개월 연속 동반 증가세를 이어간 데 힘입어 월간 600억 달러를 돌파

- 수입도 에너지 가격이 전년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원유·액화천연가스·석유제품 등의 품목들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4.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66.2%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3.3%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은 60.7% 증가한 약 58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 출	5,422 (-10.4)	5,128 (-5.4)	1,464 (12.5)	1,567 (42.1)	1,646 (26.5)	555 (29.7)	532 (34.7)	559 (16.9)	556 (24.1)	604 (32.1)
수 입	5,033 (-6.0)	4,676 (-7.1)	1,365 (12.3)	1,491 (37.6)	1,569 (37.5)	537 (38.2)	516 (44.0)	516 (31.0)	538 (37.7)	574 (43.6)
무역수지	389	452	99	76	77	18	16	43	18	3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1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 15대 품목중 자동차부품 제외한 14개 품목 수출 동반 증가세

○ **반도체** : D램 고정가격이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반면에,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인한 모바일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파운드리 분야에서의 수율 개

선과 단가 상승 등 업황 호조세가 이어지며 17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나, 국내 공장들의 가동률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출시한 친환경차 모델이 EU 등 주요 시장에서 반응이 좋으면서 3개월 만에 증가 전환

○ **자동차부품**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현지 공장들의 가동률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3개월 연속 감소세

○ **선박류** : 전세계적인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FLNG선(25억 달러 규모)이 모잠비크로 인도된 영향 등에 힘입어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디스플레이** : 국내 기업들의 출하량 조정의 가속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우위에 있는 OLED TV 시장의 확대와 모바일용 OLED 가운데 폴더블 등 하이엔드 제품 수요의 확대 등에 힘입어 수출이 8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해외 제조업체들의 신규 모델 출시와 함께 중국・아세안 등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부품 수출이 증가하고, 국산 제품의 해외 인기 지속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3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든 반면에, 석탄 가격의 강세로 철강재 수출단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자동차·건설·기계 등 전방산업 수요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세계 주요국들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글로벌 의류 수요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아세안・중국 등 주요 소싱 지역들로의 수출도 점차 늘어나면서 섬유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제품** : 주요국들의 비축유 방출과 변이 바이러스 영향 등에 따른 유가 하락에도, 석유제품 수출단가의 전년대비 높은 수준과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 **석유화학** : 건설 등 전방산업들의 경기 회복으로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요

가 호조세를 보이고, 석유화학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다, 중국・아세안 등지로의 수출이 크게 늘면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

○ **일반기계** : NC선반·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주문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에 나선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소비 성수기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미국・EU 등지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함에 따라 전체 수출도 2개월 연속 증가

○ **컴퓨터** : 노트북·PC 등 비대면 수요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나,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SSD 탑재 수요 증가와 글로벌 데이터센터 기업들의 투자 재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자동차	5.3	-13.1	31.4	74.8	6.5	12.3	16.8	-6.1	-4.7	3.3
자동차부품	-2.5	-17.3	5.6	123.2	14.9	34.9	22.1	-5.1	-1.2	-2.2
선박류	-5.2	-2.0	28.3	11.9	-1.4	10.2	38.9	-40.4	6.4	237.6
일반기계	-1.9	-8.9	-1.4	21.2	15.8	18.2	23.4	7.8	12.7	11.6
철 강	-8.6	-14.5	7.5	50.4	45.2	41.5	53.4	41.6	48.5	45.9
석유화학	-14.8	-16.4	26.5	80.3	64.0	60.2	81.6	52.2	68.8	63.0
석유제품	-12.2	-40.6	-16.6	112.6	71.4	75.7	54.5	84.3	144.2	125.5
섬 유	-8.0	-13.3	-8.3	46.0	9.9	17.4	19.0	-3.7	21.9	17.0
가 전	-3.8	0.7	16.1	66.5	11.7	29.7	12.3	-4.1	13.8	21.0
무선통신기기	-17.6	-6.4	21.5	38.5	25.7	5.0	62.0	19.6	15.5	16.5
컴퓨터	-20.6	57.2	2.8	8.9	34.0	26.4	26.1	49.4	52.7	73.5
반도체	-25.9	5.6	14.0	29.7	36.3	39.4	42.6	28.2	28.8	40.1
디스플레이	-17.0	-12.2	16.3	36.0	25.2	38.0	23.7	17.3	5.3	1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주 : 11월 수치는 잠정치 기준.

부록	원자재 가격 전망과 시사점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21.11.26일)

□ 글로벌 원자재 시장 동향 : 2020.5월 이후 랠리 지속

○ 코로나 발발 직후 급락세를 보인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반년 만에 이전 수준을 회복한 뒤 최근까지지도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

○ 주요 품목 중에서는 유가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철광석과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 글로벌 원자재 지수(CRB index) 추이 >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시기별 원자재가격 등락률(%) >

	하락기 ('20.1~'20.4)	상승기 ('20.5~'21.7)
원유(WTI기준)	-72.3	331.8
철광석	-12.0	155.9
구 리	-16.1	86.8
알루미늄	-17.6	71.1
아 연	-19.2	54.9
단순평균치	-27.4	140.1

자료: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코로나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① 실물수요 확대 ② 위험자산 선호 ③ 공급망 차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 **(실물수요 확대)** 주요국들의 산업생산이 재개되면서 원자재 소비가 증가
- **(위험자산 선호)**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금융시장 변동성 약화 등으로 투기자금이 원자재 선물시장으로 빠르게 유입
- **(공급망 차질)** 코로나로 인한 검역 강화, 노동력 부족 등으로 물류 작업이 지연되면서 원활한 공급이 제약

□ 주성분 분석(PCA)에 기반한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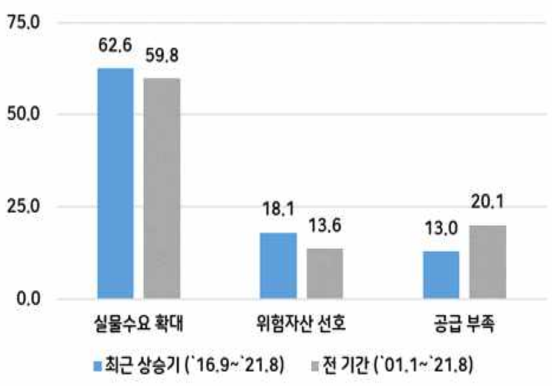
○ 실물수요 확대, 위험자산 선호, 공급망 차질 등은 주요 원자재 가격 변화를 설명(누적합 90% 이상)하는 주성분으로 추정

○ 전 기간('01.1~'21.8) 대비 최근 상승기('16.9~'21.8)에 실물수요 확대와 위험자산 선호의 설명력이 늘어난 반면, 공급망 차질의 영향력은 축소

- 실물수요 확대 요인은 두 기간 모두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60% 수준) 성분으로, 코로나 이후 단기간에 빠르게 수요가 회복되면서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
- 위험자산 선호 증가는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고, 코로나로 주요국 재정 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투기적 심리가 확대된 데 기인
- 최근 공급망 위기에도 불구, 공급망 차질 성분의 설명력이 감소한 것은 세계경제의 고성장세가 장기간 초과 수요, 공급 부족을 유발해 왔기 때문

○ 원자재별로 보면 원유는 위험자산 선호, 철광석은 공급망 차질, 비철금속은 실물수요 확대 등이 각각의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동인으로 나타남.

< 주성분 분석 결과와 요인별 설명력(%) >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최근 상승기 원자재별 주성분분석 계수 >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실물수요 확대 성분의 경우 글로벌 경기 선행지표들이 올해 들어 정점을 통과해, 2020~21년 같은 단기간 내 수요 큰 폭 확대는 어려울 전망

○ 11월 미 연준의 테이퍼링 선언을 시작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품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자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

○ 공급망 차질 문제는 운송, 항만 서비스 인력 충원과 기상이변에 따른 현장시설 피해 복구 등으로 인해 점차적인 해소 전망

○ 글로벌 주요 전망 기관들도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일부 품목들은 제한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코로나 이후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으나, 금융위기 당시의 최고치를 밑돌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가격 상승 요인들도 모두 추세적으로 안정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은 작아 보임.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2.13)	(12.14)	(12.15)	(12.16)	(12.17)
10월 기계수주	10월 산업생산(수) 10월 산업생산 연준 FOMC(~12.15일)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정투자 10월 소매판매(수) 11월 소매판매 11월 고용동향	11월 무역수지(잠) BOJ 통화정책회의 10월 수출입통계 ECB 통화정책회의 11월 산업생산	11월 소비자물가(수)
(12.20)	(12.21)	(12.22)	(12.23)	(12.24)
11월 경기선행지수	11월 생산자물가	12월 소비자신뢰지수 21.3분기 실질GDP (확 정 치)	10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11월 내구재수주(잠) 11월 개인소비	11월 소비자물가 11월 무역수지(수)
(12.27)	(12.28)	(12.29)	(12.30)	(12.31)
11월 소매판매(잠)	11월 산업생산(잠) 11월 실 업 률 12월 소비자동향조사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	11월 산업활동동향	(1.1) 12월 수출입통계
(1.3)	(1.4)	(1.5)	(1.6)	(1.7)
	12월 ISM 제조업지수		12월 ISM 서비스업지수 11월 무역수지	12월 소비자물가(예) 12월 경제체감지수 11월 소매판매 12월 고용보고서